

1949년以後의自由中國文學

—小説을中心으로—

李 再 薰*

〈目 次〉

- | | |
|---------------------|---------------------|
| 1. 緒 言 | 4. 第二期(1960년~1969년) |
| 2. 時代 區分 | 5. 第三期(1970년~) |
| 3. 第一期(1949년~1959년) | 6. 結 語 |

1. 緒 言

1919년 5월 4일을 기해 일어난 中國의 新文化 運動 이후, 胡適·陳獨秀 등이 일찌기 제창하였던 口語文學·平民文學 主張은¹⁾ 新文學 運動으로 발전하여, 과거 수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던 傳統文學 즉 文言體文學에서 벗어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口語文學 즉 白話體文學의 새로운 章을 열게 되어, 士大夫의 專有物이었던 文學이 庶民의 것으로 變身하여 죽은 文學이 아닌 생기 넘치는 文學으로서 呱呱의 聲을 울렸다.

그후 中日戰爭·國共內戰 등 國內外의 여러 역경속에서도 끈질긴 생

* 中國語文學科교수.

1) 胡適은 1917년 1월 「新青年」二卷 五號에 「文學改良芻議」를 발표, 「八不主義」를 제창하여 純粹白話文學을 주장하였으며, 陳獨秀는 同年 2월 「新青年」二卷 六號에 「文學革命論」을 발표, 山林文學·古典文學·貴族文學을 타도하고 社會文學·事實文學·國民文學을 수립하자고 제창하였다.

명력으로 성장하여 3~40년대에 비록 左翼思想의 文學界 침투가 있었지만, 靑壯年의 時期에 접어 들어 文學의 開花期를 맞이하였다.

1949년 中國共產黨이 大陸을 석권하여 國民黨政府가 臺灣으로 撤退하여 「自由中國」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면서부터, 中國의 文壇은 臺灣海峽을 東·西로 사이를 두고 둘로 나뉘어 각기의 정치적·사회적 현실 및 이데올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걸어 발전해 오고 있다. 本文은 두 개의 文壇中 海峽의 동쪽에 위치한 自由中國 文壇을 小說을 중심으로 1949년 이후의 발전 및 추세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2. 時代 區分

自由中國의 文學은 그 特質에 따라 反共文學期·모더니즘 文學期·鄉土文學期の 세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年代를 정확히 劃定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當時 國內外 政治·經濟 및 文化 등 諸般 狀況의 변동에 따라 나누는 것이 비교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第一期는 國民黨政府가 臺灣으로 移轉한 이후, 정부를 따라 大陸으로부터 건너온 소수의 기성작가와 신진 軍中作家들이 荒蕪地 狀態의 自由中國文學界를 開墾·播種하고, 또 정부의 주도하에 反攻大陸을 외쳐 국민의 戰鬪心을 양양시켰던 反共·戰鬪文學時期로 1949년에서 1959년까지이며, 第二期는 1950年代 중반 이후 美國援助와 함께 流入된 西歐文學의 영향을 받은 學士出身 특히 英文科出身의 신진 작가들에 의해 제창된 모더니즘(現代主義) 文學時期로, 1960년 文學雜誌 「現代文學」의 創刊으로부터 1969년까지이고, 第三期는 1960年代 중반부터 臺灣省出身의 作家에 의해 醞釀되어 오다가 1970년에서 1972년까지 3년간 발생한 국제 외교상의 좌절 및 工業化에 따라 야기된 사회상의 諸問題에 대한 再檢討 및 극단적이고 盲目的인 西歐化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나 主流를 이루어 社會現實을 비판하고 鄉土로의 復歸 더 나아가서는 民族으로

의 復歸를 의치는 鄉土文學時期로 1970년 이후부터 現在까지이다.

3. 第一期(1949년~1959년)

1945년 二次 世界大戰의 종결과 동시에 日本의 50년 식민통치(1895~1945)로부터 벗어난 臺灣은 다시 中國으로 歸屬되었는데, 臺灣의 中國 復歸는 文學人들에게 있어서는 日本語로부터 中國語로의 言語轉換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1930年代 이후 日本의 中國侵略이 전면화되면서 강화된 皇民化 教育을 받아 모든 文學作品을 日本語로 발표하여야 했던 楊逵·吳濁流·鍾肇政·陳火泉·黃靈芝 등 臺灣出身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곤란이 되어 잠정적으로 文學活動을 중지하고 中國語를 새로 익혀야 할 수 밖에 없었다.

臺灣의 國民黨 政府 즉 自由中國은 1949년 12월 7일 臺北에 政府를 정식으로 설치한 후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전에 大陸의 상황이 불리함을 느끼고 1948년과 1949년초에 이미 臺灣으로 피신해 온 文學作家와 知識人이 적지 않았는데, 一部는 學院으로 들어가 現實과 멀리하였고, 나머지 一部의 무리는 淫亂雜誌나 內幕을 보도하기 일삼는 雜誌에다 名士·名女人들의 軼事, 「鴛鴦蝴蝶派」의 낭만적인 서정문, 庸俗한 舊詩詞 등을 발표하며 소일하였다. 劉心皇은 '그 當時 文人들은 감히 의견을 발표하지 못했고, 또한 감히 文章도 발표하지 못했으며, 일부의 文人들은 대량으로 「大腿·櫻唇·隆胸·豐臀」의 色情文藝와 제멋대로 지껄이는 식의 서양식 유우머를 써왔다' 라고 당시 文壇을 회고했다.²⁾ 때문에 國民黨 政府가 移轉하였던 1949년 당시의 臺灣은 文學의 眞空狀態에 처해 있던 바나 다름이 없었다.

2) 劉心皇, 現代中國文學史話(臺北, 正中書局, 1971), p. 815 那時, 有多少文人嘆若寒蟬, 不敢說話, 也不敢發表文章, 有多少文人, 大量寫着「大腿·櫻唇·隆胸·豐臀」的色情文藝, 和胡扯白道的「洋幽默」.

또 비록 國民黨 政府를 따라 大陸으로부터 건너온 기성작가로 陳紀澄·謝冰瑩·王平陵·蘇雪林 등과 신진작가로 穆中南·林適存·王藍·孟瑤·劉心皇 등이 있었지만, 政府는 反共이라는 입장에서 1930년대 이후의 大陸에서의 文學을 左傾化되어 있다는 이유로 터부시하여, 文學遺產의 계승을 차단시킴으로써 自由中國文學은 처음부터 再出發해야 했다.

大陸에서 國民黨 政府가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文藝政策의 不實이었다고 생각한 政府는 混亂·黃色(淫亂)·灰色이 범람하는 퇴폐적 社會狀況을 쇄신하고 文學의 再建 및 振興을 위해 각종 운동을 조직적이고 다각적으로 펼쳤다.

1949년 11월 初에 中宣部代部長 任卓宣이 「臺北市文化運動委員會」의 主任을 맡으면서, 反共·反蘇文化運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작가 孫陵으로 하여금 「保衛大臺灣歌」를 짓도록 하여 1949년 11월 3일 각 신문에 발표하여各界가 공동으로 臺灣을 보위하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이때부터 국가와 민족의 차원에서 文學의 再建·復興運動이 시작되어, 1949년 11월 16일 孫陵은 그가 主幹하는 「民族報」의 副刊(文化面)에 「文藝工作者底當前任務」의 제목으로 發刊詞를 발표하여 「전투를 전개하여 적을 반격하자(展開戰鬪, 反擊敵人)」는 文學主張을 제창하여 文人들이 지어야 할 시대적 임무를 강조, 자유를 수호하고 蘇聯과 그 走狗 中共에 대항하는 일에 袖手旁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士兵文學·反共文學 및 진정으로 자유를 인식하고 보위하는 自由主義文學의 創造에 일치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이 自由中國 최초의 文學運動으로, 이를 기점으로 하여 「反共·戰鬪文學」이 전개되었고, 文學作家들이 이에 호응하여 1950년 5월 4일 臺北에서 「中國文藝協會」를 결성하여, 문학 본유의 사명과 문학인 자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학의 전면적 발전·전국적인 상호간의 유대 강화 및 당면한 국가의 反共政策을 지지하고 反攻大陸의 임무를 달성하는 것을 설립 취지로 삼았다.

당시 이 發足大會에 참석한 150여 명의 文人들은 大陸에서의 기성작가인 陳紀滢·王平陵·謝冰瑩·張道藩·羅家倫 등을 중심으로 모두 단결하였던 바, 「中國文藝協會成立大會及第一次會員大會宣言」을 통하여, 中華民國의 忠貞한 國民으로서 「反共抗俄(蘇)」를 우선 임무로 삼아 작가의 본분을 다하여 民族正氣의 發揚·社會人心의 安定·反攻復國의 達成에 힘쓸 것이며, 文學과 政治의 관계는 主奴 또는 仇敵의 관계가 아니라 平等한 지위로서의 친구로 서로 보완하고 협조하여 國民革命에 있어서 心理的 一翼을 담당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외에 1953년 8월 2일 「青年反共救國團」의 지원하에 「中國青年寫作協會」가 발족되어 청년 작가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청소년에게 문학적 흥미를 배양하여, 寫作水準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고, 1955년 5월 5일 「臺灣省婦女寫作協會」가 발족되어 女流作家들의 친목·부녀자 寫作活動의 鼓舞·부녀문계의 연구 등을 설립취지로 삼았는데, 이 두협회는 三民主義의 실천과 反共抗蘇를 공통의 宗旨로 삼았다.

1953년 11월 蔣介石 總統은 「民生主義育樂兩篇補述」을 著述하여 ‘一般國民들은 黃色的 害를 입지 않으면 赤色の 毒에 중독되어 있어, …… 이 두가지 毒素가 국민의 심리적 건강을 해치고 있으니 赤色の 毒과 黃色的 害를 제거해야 한다.’³⁾고 지적한 데에 기인하여, 1954년 8월 「中國文藝協會」의 主導하에 色情的인 것과 容共的인 것, 그리고 社會·個人의 内幕을 眞實되게 보도하지 않고 왜곡 보도하는 黑色的인 것이 만연한 당시 文壇을 淨化하고 참신한 문학을 건설하기 위해 「文化清潔運動」을 전개하여 同月 9일 臺北市 각 일간지에 「自由中國各界爲推行文化清潔運動勸行除三害宣言」을 발표하여 「文化三害」——赤色の 毒·黃色的 害·黑色的 罪를 추방하여 文壇의 淨化를 주장하고,⁴⁾ 同月 中旬에 「文化清潔

3) 周錦, 中國新文學史(臺北, 長歌出版社, 1977), p. 756 인용. 一般國民不是受黃色的害, 便是中赤色的毒. ……這兩種毒來殘害我國民心理的健康, ……務須剷除赤色的毒與黃色的害.

4) 上揭書, p. 758~760 ‘自由中國各界爲推行文化清潔運動勸行除三害宣言’ 참조.

挺進會」를 발족하여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1955년 봄 蔣介石 總統이 「戰鬪文藝」를 提示하여, 文學界는 이에 호응하여 「戰鬪文藝運動」을 전개하였는데, 「文化清潔」이 소극적 정화운동이라 한다면, 「戰鬪文藝」는 적극적인 건설운동으로, 反頹廢·反消閑·反保守·反虛無·反機械·反盲目的의 원칙하에 戰鬪性·團結性·積極性·創造性의 內容을 가진 作品을 써서, 모든 文學作品은 中共과 蘇聯帝國主義 및 失敗主義·灰色思想에 對한 戰鬪精神과 意識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

1956년 1월 中國國民黨은 이를 정식으로 추진하여 후의 「國軍新文藝運動」으로 계승시켰다.

또 이 시기에 정부의 有關部門에서는 施賞委員會를 조직하여 文人의 창작의욕을 높여 文壇의 活性化를 꾀했다.

「中華文藝獎金委員會」가 1950년 3월 설립되어 1956년 末까지 7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120여명의 文學藝術人에게 시상하였다.

國防部總政治作戰部가 「軍中文藝獎金」을 설치하여 1954년부터 1958년까지 5차례에 걸쳐 269명의 軍中文學藝術人에게 시상하여 軍人들의 文學活動을 장려하였다.

教育部가 1955년에 「教育部文藝獎」을 설치하여 매년 文學·音樂·美術·舞蹈·演劇의 五個部門으로 나누어 우수한 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⁶⁾

文人들에게 作品發表의 場을 마련하여 주어 文壇의 發展에 크게 기여한 것은 文學雜誌와 각 신문의 副刊(文化面)이었는데, 당시에 발간되던 臺灣新生報·中央日報·民族晚報·中華日報·臺灣新聞報·聯合報 등 모든 日刊紙는 文化面을 두어 매일 文人의 作品을 실어 주었고, 野風(1950

5) 上揭書, p. 761~763 참조.

6) 이 賞은 1967년 이전까지 教育部에서 직접 관리하다가 1968년부터 教育部 文化局으로 이관되었으며 名稱도 「文藝獎」으로 바뀌었다.

년 2월~1965년 10월)·暢流(1950년 2월~)·新文藝(1950년 5월)·火炬(1950년 12월~)·文藝創作(1951년 5월~)·半月文藝(1951년 5월~)·中國語文(1952년 4월~)·文壇(1952년 6월~)·幼獅文藝(1954년 3월~)·文學雜誌(1956년 9월~1960년 8월) 등의 文藝雜誌도 文學理論의 소개·文學批評과 아울러 文人에게 作品을 발표할 기회를 주었다.

1950년대의 自由中國 小説은 政治的·社會的 환경에 의해 單一한 主題를 다루고 있다. 즉 共產黨의 暴惡·醜陋함을 폭로하여 宣傳工作의 義務을 담당하거나 과거 日本과의 八年抗戰의 武勇을 이야기하여 民族의 強忍·優越性을 강조하거나 대륙을 향한 즐기찬 鄉愁의 눈물을 뿌리거나 領袖를 歌頌하는 등의 作品이 大宗을 이루었다.

抗日戰爭 및 共產黨의 추악함·내부투쟁·비인간성을 폭로한 이 시대의 代表的인 小説로 孫陵의 「覺醒的人」(1948년)·王藍의 「藍與黑」(1948년)·潘人木의 「如夢記」(1950년)·姜貴의 「旋風」(1959년)·張愛玲의 「赤地之戀」(1954년)·陳紀瀾의 「赤地」(1955년)·「華夏八年」(1960년)·鹿橋의 「未央歌」(1959년)·趙滋蕃의 「子午線上」(1960년)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趙滋蕃은 「半下流社會」와 「半上流社會」를 발표하여, 大陸이 共產黨의 손아귀에 들어간 뒤 홍콩으로 피난한 難民들의 生活狀을 그렸는데, 「半下流社會」에서는 下層階級難民의 刻苦奮闘하는 生活를 그리며 그들의 건전한 精神生活를 찬양하였으며, 「半上流社會」에서는 홍콩으로 도주한 政客과 軍閥의 호화로운 생활을 그리며 이들 高級難民의 추악하고 퇴폐적인 精神生活를 鄙視하였다.

이 시기에 五·四運動 以來 처음으로 特殊層의 作家群이 本格的으로 출현하여 自由中國의 文壇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니, 바로 軍人出身의 作家이다. 新文學 초기에 少數의 踴출한 軍中作家가 배출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성취는 文人作家에 比할바는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軍中作家들은 그 성취가 文人作家에 못지 않을 뿐더러 文壇을 主導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거의가 大陸에서 學徒兵·青年軍으로 징

모되어 온 靑少年으로 臺灣으로 건너온 이후에 小說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로 朱西寧·司馬中原·段彩華·吳東權·田原·尼洛·馮馮·呼嘯·桑品載 등이 代表의 人物로, 1950년대 中期 이후로 활발한 作品活動을 벌여 그들의 성취는 刮目할 만한 것이었다. 그들은 생활경험이 풍부하고 민족의식이 강한 작가들로 현실을 美化시킨 理想主義나 軟弱하고 蒼白한 文風을 반대하여, 그들의 作品은 豪放·悲壯한 風格을 띄고 있다.⁷⁾

그리고 特記할 만한 일은 女流作家의 활발한 활동이다. 大陸으로부터 건너온 蘇雪林·謝冰瑩·林海音·孟瑤·郭良蕙 등 기성작가를 비롯하여 臺灣에서 作品活動을 시작한 艾雯·繁露·瓊瑤·鄧朶梅·張愛玲·聶華蓀 등의 新進作家들은 「臺灣省婦女寫作協會」를 중심으로 하여 작품활동을 하였는데, 이들 作品의 특징은 가정의 일상생활·섬세한 개인감정·新舊文化 交叉期에 있어서의 女性的 갈등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의 小說은 거의가 그 배경은 大陸을 무대로 하고 있으며, 설사 그 무대가 臺灣의 臺北 또는 臺南이라 하여도 小說속의 人物은 大陸式的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大陸의 기억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⁸⁾ 現實生活과는 乖離된 내용을 주제로 하여 望鄉의 설움을 달래는 도구로 삼았다. 後期로 접어들면서 作風은 「復仇主義」에서 「英雄主義」로, 豪放·悲壯한 主題는 千篇一律의인 「反共八股文學」으로 흐르게 되었다.⁹⁾

또 瓊瑤같은 작가는 통속적인 男女戀愛小說을 대량 생산하여 많은 靑春男女의 눈물을 짜냈으며, 1955년 이후 文化清潔運動의 대대적인 추진으로 「文化三害」를 추방하고자 하였으나, 黃色的 害는 여전하여 大劍客·大情郎을 主人公으로 하는 幻想의 낭만소설인 武俠小說과 探偵小說·色情小說 등이 범람하여 독자층에 파고 들어 국민의 의식을 마비시켰

7) 余光中, 中國現代文學大系(臺北, 巨人出版社, 1972), '總序' p.6 참조.

8) 劉紹銘, 本地作家小說選(臺北, 大地出版社, 1967), 序 p.2~3 참조.

9) 侯立朝, 七十年代鄉土文學的新理解(「中國論壇」第五卷 二期, 臺北, 1977).

던 것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이다.

1950年代 中期 以後로 自由中國에는 西歐化의 바람이 불면서 文壇에도 西歐化의 물결이 흘러들어 오기 시작하여 새로운 文學潮流의 기틀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臺灣大學 外國文學科 教授 夏濟安이 「文學雜誌」를 창간하여 歐美의 文學思潮와 作家를 소개하였고, 이어 尉天驄이 창간한 「筆匯」 또한 西歐의 「다다이즘」·「초현실주의」 및 외국의 작가·비평·이론 등을 소개하여 이후 60년대 문학을 유도하였다.

4. 第二期(1960년~1969년)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西歐의 모더니즘(現代主義)文學이 당시 自由中國文壇의 主流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보아 필연적인 歸結이었다.

첫째로, 1950년대는 政治的·思想的인 제약으로 五·四運動 以來의 문학작품은 徐志摩·朱自淸 등 극소수의 작가 및 臺灣으로 철수한 大陸作家的 작품이외에는 거의가 左傾이라는 이유로 禁書가 되었고, 당시 기성작가들은 거의가 懷古·反共文學에 종사하여, 文學徒의 학습대상이 될 만한 일정한 수준의 작가가 없어 1950년대 초기의 신진작가들은 懷古·望鄉의 심정으로 徐志摩·朱自淸의 遺作을 모방할 뿐이었다.¹⁰⁾ 때문에 1950년대 후반기에 출현하기 시작하는 臺灣에서 성장한 많은 青年文學徒 특히 學士出身의 작가들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의 문학수업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었고, 설사 五·四時代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2·30년이 지난 묵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문학수업의 대상이 되기에 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접하여 배울만한 것은, 縱的으로 中國의 悠久한 古典文學과 橫的으로 外國文學 특히 歐美와 日本의 現代文學이 있을 뿐이었

10) 中國現代文學大系 '總序' p.2 참조.

다. 그리하여 새로운 학습대상을 摸索하던 중 1953년 美國의 경제원조와 더불어 함께 유입된 西歐의 現代文學에서 그 學習의 대상을 찾게 되어 文學의 「橫的移植」¹¹⁾을 施行하였다.

둘째로, 1950년 韓國의 6·25전쟁의 발발 이후, 美國은 自由中國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53년부터 경제원조를 시작하여 自由中國의 經濟復興과 政治安定에 온 힘을 傾注하였다. 정치상의 안정과 경제——특히 商工業의 발달로 인해 비록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풍족한 富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지나친 工業化·都市化로 人間의 機械化·道具化의 問題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西歐文學을 배운 自由中國의 學院派 젊은 작가들은 20世紀 이후 資本主義社會 機械文明의 급속한 발달로 西歐에서 일어난 人間의 疏外·彷徨·孤獨을 호소하며 自己自身을 찾으려는 個人的이고 內省的인 實存主義文學을 비롯 象徵主義·超現實主義·모더니즘文學·意識流의 作品을 欣賞하고, 新聞·雜誌를 통하여 T.S.엘리어트·카프카·까뮈·D.H.로렌스 등을 소개하였으며, 西歐文學批評理論을 이용하여 「荒蕪地」·「城」·「異邦人」 등을 비평하였고, 더 나아가서 西歐現代作家들을 모방하여 작품을 써내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末期의 感傷的인 懷古·英雄主義文學에 食傷을 한 독자들 도 이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이 펼쳐내는 세계를 환영하여,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더니즘文學은 당시 文壇의 主流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모더니즘文學을 주도한 文學雜誌로는 1960년 3월에 臺灣大學 外國文學科 學生인 白先勇·歐陽子·陳若曦·王文興 등에 의해 창간된 「現代文學」으로 西歐의 文學作家·作品·理論을 소개하였고, 아울러 많은 新進作家들의 創作作品을 실었다.

이외에 「純文學」(林海音 創刊, 1962년~1972년)·「文學季刊」(尉天聰

11) 文學의 「橫的移植」이라는 말은 1950년대 詩人들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1960년대에 오면서 소설가들도 이를 주장하였다.

창간, 1966년~1971년)·「傳記文學」(1962년~)·「作品」(1968년~1971년)
·「青溪」(1967년~)·「作品」(1968년~1971년)·「落花生」(1969년~1970
년)등의 잡지 또한 모더니즘文學의 불꽃에 바람을 불어 넣어 주었다.

모더니즘文學의 豐收期는 1960년대 中·後半期로 白先勇(鶻仙記·단
편집·1967년, 遊園驚夢·단편집·1968년, 臺北人·단편집·1971년)·
王文興(龍天樓·단편집·1967년, 玩具手槍·단편집·1970년, 家變·장
편·1973년)·水晶(拋磚記·단편집·1965년, 靑色的炸魘·단편집·1967
년)·歐陽子(那長頭髮的女孩·단편집·1967년, 秋葉·단편집·1971년)
·施叔青(約伯的末裔·단편집·1969년, 拾掇那些日子·단편집·1971년)
林懷民(變形虹·단편집·1967년, 蟬·단편집·1973년)·叢甦(白色的網
·단편집, 秋霧·단편집) 등 많은 신인 작가들이 배출되었는데, 이들 작
품세계에 나타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傳統觀念에 대한 否定·小市民
특히 젊은 지식인의 心的 葛藤·彷徨 및 새로운 가치관의 추구를 그렸
다는 점이다.

이 시기 모더니즘文學의 代表作으로 白先勇의 「臺北人」과 王文興의
「家變」을 들 수 있다.

「臺北人」은 1965년 「現代文學」에 발표했던 「永遠的尹雪艷」으로부터
1971년 同志에 발표했던 「國葬」까지 모두 14편의 단편을 묶은 단편집으
로, 14편 모두 大陸에서 온 사람들——中年 또는 老年에 접어든 맨스걸
·마담·敎員·將軍·侍從·敎授·俳優 등 각 계층의 人物들의 과거와
現在의 生活을 그려, 과거의 理想·情熱·傳統·靑春·純潔과 現在의 現
實·絕望·西化·衰弱·老醜·色欲·物質·淫亂 등을 縱錯的으로 대비
시켜 傳統文化와 機械文明間의 갈등을 갈파하고 있는데, 「臺北人」소설
집 前頁에 唐 劉禹錫의 詩「烏衣巷」¹²⁾을 실어 中國傳統話本小話의 「楔
子」로 삼아 過去의 榮華와 現在의 失落을 상징하였다. 단지 社會性이 비

12) 이 詩의 全文은 '朱雀橋邊野草花, 烏衣巷口夕陽斜. 舊時王謝堂前燕, 飛入尋常百姓家'
로 六朝 때 번화했던 南京의 烏衣巷, 東晉의 門閥이었던 王導와 謝安의 古家의 황폐
화·民家化를 읊은 回古詩이다.

교적 결핍되어 이 作品들의 廣度를 제한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家變」은 王文興이 1973년에 發表한 長篇小說이지만 1960年代 모더니즘의 代表作으로 꼽을 수 있는데, 자식의 冷待에 못이겨 家出한 늙은 아버지를 찾으려 몇번 尋人廣告를 내다가 그만두고 그의 어머니와 둘이서 산다는 내용으로 家庭을 重視하는 傳統倫理의 否定과 억압받아 살아오던 青年世代의 심리상태를 진지하게 과 檢한 問題作으로, 胡秋原은 이 作品이 現代派·西化派의 代表作으로 傳統을 破壞하려 한다고 비평하였다.¹³⁾

이 作品의 表現技巧로서 특기할 만한 것은 中國文字의 構成原理를 이용하여 死藏된 文字의 再活用·新語彙의 創造 등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한편, 모더니즘이 當時 文壇을 풍미함에 따라 퇴색되어가는 국민의 民族文化와 反共戰鬪意識을 振作시키기 위해 政府 및 有關機關은 다각적인 努力의 노력을 하였다.

1964년 中國國民黨은 「新聞工作會議」를 소집하여, 「加強新聞文藝工作合作, 以擴大文藝戰鬪的功能, 促進反攻大業案」을 통과시켜, 文學의 戰鬪性을 다시 강조하였고, 이듬해 4월 4일 國防部總政治作戰部에서 全軍의 軍中作家와 全國의 작가를 초청하여 「第一屆軍中文藝大會」를 열어 三十年代 文學의 맹목적인 西歐化가 共產黨의 利用物이 되어 결국은 中國大陸을 잃게 되는데 큰 원인이 되었음을 상기시킴과 아울러 文學思潮의 極端的인 西歐化를 경고하고,¹⁴⁾ 蔣介石 總統이 指示한 12가지 精神을¹⁵⁾ 받들어 民族文化의 창도를 위해 軍中作家가 戰鬪의 核心이 되어 文學을 軍中에 전파, 軍人精神의 振作·軍民의 融化·對中共 文化戰의 強化를 목표로 「軍中文藝運動」을 본격화 시켰고, 이를 위해 國防部總政治作戰

13) 尉天聰, 鄉土文學討論集(臺灣, 遠景出版社, 1980), p. 17.

14) 國軍第一屆文藝大會宣言(青年戰士報, 1965년 4월 8일) 참조.

15) ①發揚民族仁愛精神, ②復興革命武德精神, ③激動慷慨奮鬥精神, ④發揮合群互助精神, ⑤實踐言行一致精神, ⑥鼓舞樂觀無畏精神, ⑦激發冒險創造精神, ⑧獎進積極負責精神, ⑨提高求精求實精神, ⑩強國雪恥復仇精神, ⑪砥礪獻身殉國精神, ⑫培育成功成仁精神.

部에 「新文藝運動輔導委員會」를 설치, 1965년부터 1970년까지 네 차례 軍中文藝大會를 개최하여 이 運動을 주도하였고, 「軍中文藝金像獎」을 개설하여 丁玉山の 「根」·王賢忠의 「搜索排」·王映湘의 「鐵漢」·朱章新的 「飛」·「天險歷程」·吳楓의 「暖流」·吳東權의 「三人行」·吳俊傑의 「跳」·吳樹廉의 「我與衢城」·李夢如의 「代價」·李志權의 「舅舅的恩澤」·李藍의 「黑鄉」·李曉丹의 「颯颯」·何祖武의 「挖」·季耀의 「翠谷」·宋項如의 「海正咆哮」·邵儻의 「泡沫, 泡沫」·夏楚의 「兵車行」·段彩華의 「三馬入峪」·張放的 「荒園」·趙玉明的 「咆哮大地」·劉惟雄의 「英雄堡」 등 많은 軍中の 신인 및 작가의 작품에 대해 시상을 하여 軍中文學을 진흥시켰다.

1966년 3월 「第九屆三中全會」에서 「加強戰鬪文藝之領導, 以爲三民主義思想作戰之前鋒案」을 통과시켰는데, 이 案中에서 中國國民黨은 구체적으로 「強化戰鬪文藝領導方案」을 제시하여 과거의 文藝政策과 方案을 綜合·再檢討하여 黨의 文藝主導를 꾀했다.

中共에서 「文化大革命」이 고조에 달하여 傳統文物의 파괴·孔子에 대한 批判이 한창일 때를 같이하여, 1966년 11월 12일 中國의 國父 孫文의 탄신 百週年을 기념하는 날에 蔣介石 總統은 「國父一百卅一誕辰中山樓中華文化堂落成紀念文」을 통하여 이 날을 「中華文化復興節」로 선포하고, 同年 12월 中國國民黨 「第九屆四中全會」에서 「中華文化復興運動推行綱要」를 통과시키고, 이듬해 「中華文化復興推行委員會」를 발족하여 中國의 傳統文化·舊文學의 새로운 評價·古籍의 現代譯出版·孔孟思想的 再教育 等を 추진하였다.

1967년 11월 中國國民黨은 「第九屆五中全會」에서 「當前文藝政策」을 제정하여 文藝政策의 基本目標과 創作路線을 제시하여 文學의 戰鬪性·反共性·社會性·心理性 등을 再次 強調하였다.¹⁶⁾

1968년 5월 下旬에 中國國民黨은 「當前文藝政策」의 효과적인 추진을

16) 中國新文學史, p. 769~776 참조.

위해 「全國文藝大會」를 개최하여 「仁」의 精神으로 三民主義 新文藝運動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미 西歐化된 國民의식 風土下에서의 정부의 이러한 諸般 努力은 大勢를 挽回할 수 없어 몇몇 大陸時代의 記성작가 및 軍中作家들에게만 그 영향력이 미쳤을 뿐이어서 당시의 文壇은 모더니즘 一色이었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潮流속에서 現代人의 彷徨·頹廢·享樂·麻痺를 호소하는 文學도 아니고 反共·戰鬪意識을 부르짖는 文學도 아닌 또 다른 內容의 文學이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日帝下 臺灣에서 作品活動을 하였던 鍾肇政·吳濁流 등이 10여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文壇에 복귀하여 作品活動을 재개, 吳濁流는 「遙遠的路」(1967년)를, 鍾肇政은 「濁流」(1962년)와 「沈淪」(1968년)을 發表하였으며, 臺灣에서 出生하여 臺灣에서 성장한 소위 本省出身의 陳映眞·黃春明·王禎和·七等生·李昂·李喬·楊青矗·鍾鐵民·黃娟·鄭清文·季季·江上 등 젊은 작가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들중 陳映眞은 「第一件差事」(1967년)를, 王禎和는 「嫁粧一牛車」(1967년)를, 黃春明은 「看海的日子」(1967년)를, 七等生은 「我愛黑眼珠」(1967년)를, 楊青矗은 「在室男」(1969년)을 발표하였는데 모두 순수 단편으로 손꼽히고 있다.

臺灣省出身의 作家들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鄉土를 배경으로 그들에 익숙한 鄉土人物을 소재로 하여 이들 生活의 愛환을 寫實的으로 그려내어, 그들의 作品속에는 흙냄새 짙은 鄉土에의 애착과 純樸한 人間味 넘치는 삶에 대한 따뜻한 人情이 흐르고 있어, 모더니즘 文學의 都市的이고 冷笑的이며 象徵的인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吳濁流는 1964년에 文學雜誌 「臺灣文藝」를 창간하여 이들에게 創作機會를 제공하였고, 이듬해에 「臺灣文學獎」을 설립하여 臺灣出身作家들의 創作活動을 鼓舞하였다.

5. 第三期(1970년 ~)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文學의 발전은 당시 政治·經濟 및 社會 등 客觀的 條件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수가 많다. 만약 당시 역사적 客觀 조건이 어떤 文學潮流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 성숙되지 않았으면, 그 文學이 시대를 초월하여 主流가 될 수 없다. 즉 이는 1970년 이전의 自由中國의 文壇에 臺灣의 鄉土를 배경으로 하는 소위 「鄉土文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客觀적 조건상 이러한 鄉土를 基盤으로 한 「鄉土文學」에 성숙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사 이를 주장하고 創作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 文壇의 主流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政治的·社會的으로 自由中國에 크나 큰 挫折과 시련을 안겨와 民衆의 새로운 작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國際政治的으로, 1970년 10월 캐나다가 中共을 승인하였고 1971년 6월 美·日 兩國間에 오끼나와 返還協定이 調印되었는데 이 協定에는 自由中國이 그들의 領土라고 주장하는 센카꾸列島(尖閣列島, 中國名은 釣魚臺)의 日本 歸屬의 內容이 들어 있어 協定調印에 앞서 4월에는 臺灣의 大學生·專門學校 학생들이 美·日 양 大使館의 앞에서 항의 示威를 벌였으며, 同年에 美國 大統領 닉슨이 극적으로 中共을 방문하였고, 그 해 가을의 유엔 총회는 臺灣의 추방·中共 招請을 가결하였으며, 1972년 9월에는 日本이 自由中國과 斷交를 하였다. 이러한 國際外交의 과정은 國民에게 새로운 民族意識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줄곧 침묵을 지켜온 臺灣民衆들은 발언의 기회를 잡아 社會·政治的으로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다.

經濟的인 面에 있어서, 1960년부터 1974년까지 세계적 好景氣로 인해 自由中國은 未曾有의 繁榮時代를 맞이하였지만, 이 기간중에 社會財富의 증가와 더불어 工·商經濟體制 內部的 問題가 발생하였다. 所得의 分

配 問題·工場勤勞者의 作業條件 問題 및 職業病 問題·農村·漁村·鑛山村의 近代化에 따른 社會的 問題 등이 社會와 젊은이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이에 戰後 젊은 世代의 작가 특히 臺灣省 出身의 작가들은 愛國의 情緒와 民族主義에 立脚하여 外來經濟·文化의 全面的 支配下에서의 臺灣의 鄉村과 사람들의 困境을 全盤的으로 새로 돌아보게 되었다. 그들은 世紀末의이며 現實社會와 동떨어져 無病呻吟하는 모더니즘末流에 反抗하여 모더니즘의 時代는 몰락하였다고 부르짖으며,¹⁷⁾ 西歐로부터 수입된 文學形式과 感情을 더 이상 빌리지 않고 당당한 自由中國 現實社會 특히 農村社會의 問題와 그 現實에서 살아가고 있는 人物들을 現實의이고 寫實的인 形式으로 묘사하여 社會矛盾과 國民意識의 拜金化·物質化를 냉철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렇게 그들은 文學의 社會性을 제기함과 아울러 文學은 마땅히 大多數人이 이해할 수 있는 愛國의이고 民族主義的이며 人道主義的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文學의 의의는 개인 內心의 갈등을 묘사하는 것보다 한 時代·한 社會를 直視하고 批判하는 「社會良心」내지 「社會意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⁸⁾

1960년대 中期 이후 돌출한 작가인 黃春明은 「莎啞娜啦·再見」을 통해 日本人의 妓生觀光과 뼈뿌러진 國民意識을, 「蘋果的滋味」와 「小寡婦」를 통해 崇洋媚外하는 社會風潮를 통렬하게 비판하였으며, 공장근로자 출신인 楊青矗은 「工廠人」을 통하여 공장근로자의 低賃金·나쁜 作業環境·企業家의 횡포 등을 고발하였고, 王禎和는 「小林來臺北」와 「伊會念咒」등을 통하여 都市文明의 虛構性·物質化 및 醜惡狀을 폭로 鄉土로의 回歸을 외쳤으며, 1970년대의 작가인 王拓은 「金水簾」과 「蚌」를 통해 그가 자란 基隆市의 작은 漁村 八斗子를 배경으로 한 近代化에 따른 漁村의 文明社會와의 갈등 및 內部矛盾을, 「望君早歸」를 통해 1970년대 이

17) 葉石濤, 臺灣鄉土作家論集(臺北, 遠景出版社, 1981), p.50.

18) 陳映真, 文學來自社會反映社會(仙人掌 第五期, 臺北, 1977년 7월) 참조.

후 新興 工商業 發達로 야기된 社會問題를 제기하였고, 曾心儀는 순박한 시골 처녀가 美國 Harvard 大學에서 博士學位를 취득하고 歸國한 知識青年에게 肉慾의 노리개가 되었다가 버림받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내용의 「我愛博士」를 통해 도시 生活人 특히 知識階層의 僞善·洋奴化를 꼬집었다.

이외에 李喬·七等生·季季·黃娟·鄭清文·黃靈芝·廖清秀·張彥勳·鄭煥·林鍾隆·鍾鐵民·黃海·江文雙·李篤恭·潘榮禮 등 臺灣省 出身의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벌여 工商業社會의 不條理·農漁村의 諸般 問題 및 鄉土에의 짙은 애정을 그렸다.

이 時期의 鄉土文學작품의 특징을 1960년대 *모더니즘文學작품과 비교하여 보면, 1960년대 文學의 社會現實로부터의 逃避 내지 否定에서 社會現實에 대한 參與 내지 重視로, 中產層·知識層을 위주로 한 퇴폐적 모더니즘에서 低所得層·庶民을 위주로 한 건전한 鄉土主義로, 國際主義에서 民族回歸로 轉換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鄉土文學의 대두와 더불어 죽음과 함께 매몰되었다가 새로운 평가를 받아 봄을 일으킨 작가가 있다. 平生을 가난과 病魔에 시달리며 불우하게 보낸 鍾理和(1915~1960)는 臺灣省 出身의 客家人으로 소년 시절 年上の 同姓 女人을 사랑하다 집안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 女人과 大陸으로 도망쳐 결혼하고, 北京 等地를 전전하다 臺灣光復後 臺灣으로 돌아와 作品活動을 하였지만, 늘 신문·잡지사로부터 외면을 당하여 오다가 그가 죽기 1년전인 1959년에 처음으로 聯合報 副刊에 그의 단편 「蒼蠅」이 실리기 시작하여 죽기까지 계속 聯合報를 통하여 中·短篇을 발표하였다. 1960년 그가 죽은 후 그의 이름은 독자의 뇌리에서 사라졌다가, 1970년대 鄉土文學의 대두로 그의 作品에 대한 再評價가 실시되어 1971년 鍾理和遺作出版委員會에 의해 長篇 「笠山農場」이 출판되었고, 1976년 臺北 遠行出版社가 張良澤 編으로 鍾理和全集 全八卷을 출판하여 鍾理和文學의 봄을 형성하였고, 1980년에는 그의 일생의 文人的 傳記를 影

畫化한 「原鄉人」이 인기리에 放映되었을 뿐 아니라 同年 8월 2일 3일자 聯合報에 林毓生의 「鍾理和·原鄉人·中國人文精神」이라는 論文을 연재하였고, 8월 4일에 鍾理和記念館을 착공하게 되어 鍾理和 畚의 절경을 이루었다. 鍾理和의 작품세계는 臺灣의 農村을 무대로 하여 反封建·反侵略의 강인한 의지와 깊은 鄉土愛를 지니고 있어, 中國의 民族愛와 人文精神을 유감없이 나타내 독자의 마음을 끄는 끈끈한 무엇이 있다.

이 時期에 鍾理和의 小說과 더불어 재평가·재인식된 것으로 日帝時代의 臺灣 鄉土文學이 있다. 日帝時代의 反日抵抗民族文學으로서의 鄉土文學이 「文季」·「中外文學」·「夏潮」·「大學雜誌」·「臺灣文藝」 등의 잡지를 통해 부단히 소개·평가되고 있다.

鄉土文學은 본래 1960년대 中期 以後 農土性·鄉土性·素樸性·民俗性を 띤 것으로 따뜻하고 훈냄새가 물씬 풍기는 文學으로서 출발하였으나, 1970년대 初期의 國內外的 政治·社會狀況의 激變 등의 因素로 인해 現實參與와 批判의 火藥 냄새 풍기는 文學으로 변모하게 되어, 1970년대 後半期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기성작가의 批判의 대상이 되었다. 기성작가들은 鄉土文學 作家들이 鄉土를 무대로 하여 臺灣 農民·漁民·工人 등 小人物을 묘사하거나 社會의 지나친 西歐化 및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① 鄉土文學은 그 視野와 風格에 限界가 있어, 偏狹한 地方主義에 흐르게 될 것이며,¹⁹⁾

② 現實批判에서 출발한 鄉土文學은 現實을 凝視하기 때문에 怨恨과 憤怒의 감정표현의 要素가 다분하여 그 動機가 純正하지 않으며,²⁰⁾

③ 그로부터 제창한 民族主義觀念·愛國의 情熱은 盲目的이고 偏頗의 인 것으로 장차 義和團의 前轍을 밟을 우려가 있고,²¹⁾

④ 西歐化에 대한 반대는 文化에 대한 否定이며,²²⁾

19) 銀正雄, 墳地裡哪來的鐘聲(仙人掌 第二期, 臺北, 1977년 4월) 참조.

20) 上揭書 참조.

21) 王文興, 鄉土文學의 功與過(夏潮 第二十三期, 臺北, 1978년 2월) 참조.

⑤ 現代社會에 있어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低所得層·貧者에 대한 同情은 非理性的이며,²²⁾

⑥ 臺灣鄉村의 小人物과 그들의 哀歎을 그린 鄉土文學은 묘사 대상이 너무 좁고 단순하여 鄉土文學이 아니라 鄉村文學에 불과하다고 비평하였고,²³⁾ 심지어는

⑦ 鄉土文學 작가들이 臺灣의 經濟는 植民地 經濟이며 買辦 經濟라고 여겨 少數의 資本家를 반대하고 低所得層인 農民·工人을 同情, 그들의 생활을 다루고 農民·工人·軍人의 創作活動을 고무하여 현실 비판·참여의 의식을 고취시킴과²⁴⁾ 아울러 그들의 문학이 「社會的 寫實主義」 또는 「現實主義」의 文學이라고 自稱하였다 하여,²⁵⁾ 「階級鬭爭을 고취시키는 文學」·「社會主義的 寫實主義文學」·「工農兵文學」이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²⁶⁾

이러한 비판의 열기는 1977년 8월 末에 政府·民間이 연합 개최하였던 「全國第二次文藝會談」 때 최고조에 달해, 이를 불건전한 鄉土文學으로 看做하고 이를 추방하자는 결의를 하는 동시에 「當前文學問題總批判」이라는 책자를 전국에 배포하여 ‘현재 文壇에는 사람의 가족을 뒤집어 쓴 한 무리의 이리들이 鄉土文學의 이름을 빌어 階級文學의 毒素을 판매하고 심지어는 「工農兵文學」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辛辣하게 규탄하였다.²⁷⁾

또 이 회의에서 1970년대부터 대두되어 온 「三十年代文學」의 개방 요구에 대해 토론, 현실적으로 「三十年代文學」의 개방은 부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22) 上揭書 참조.

23) 上揭書 참조.

24) 何欣, 鄉土文學怎樣「鄉土」(夏潮 第十七期, 臺北, 1977년 8월) 참조.

25) 尉天驄, 文學爲人生服務(夏潮 第十七期, 臺北, 1977년 8월) 참조.

26) 王拓, 是「現實主義」文學, 不是「鄉土文學」(仙人掌 第二期, 臺北, 1977년 4월) 참조.

27) 鄉土文學討論集 p.20 참조.

28) 鄉土文學討論集, 出版說明 p.1, 과 余光中, 「狼來了」(聯合報, 1977년 8월 20일) 참조.

1978년 1월 18, 19 兩일간 臺北에서 거행된 「國軍文藝大會」에서 國防部總政治作戰部主任 王昇將軍은 「實存主義」·「鄉土文學」 및 「工農兵文學」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현재의 鄉土文學이 共產黨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여 鄉土文學作家들의 自肅을 촉구하였고, 實存主義 특히 싸르트르式的 '反抗을 위한 反抗'의 實存主義는 現在 中國民族이 처한 상황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지적하여 文學에 대한 政府의 입장을 밝혔다.²⁹⁾

이러한 鄉土文學에 대한 批判과 警告로 鄉土文學의 열기가 다소 식어가는 마당에 다시 불을 붙인 충격적 사건이 1978년 12월에 일어났으니, 바로 美國과 中共의 修交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鄉土文學의 反賣辦·反西洋의 口號가 國民의 호응을 얻어 그 열기는 現在까지 계속되고 있다.

結 語

1949년 이후 10년간의 自由中國文學은 '淨化와 復興'³⁰⁾에 몸부림쳤던 時期이고, 그 이후의 西歐文化의 수입으로 펼쳐진 모더니즘文學期와 民族的 自省과 社會內部矛盾을 告發한 鄉土文學期까지 오면서 臺灣이라는 작은 섬에서 자라온 自由中國文壇은 五·四運動 이후의 大陸文學의 傳統을 단절하고 現代文學보다 傳統古典文學의 교육에 치중하는 學校教育의 惡條件에서 成長·發展하였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文壇과 다르다.

第一期 作品은 거의가 長篇 大河小說이며 第二·三期의 作品은 短篇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949년 이후 小說文學의 경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少數人이 大衆을 대변하는 文學에서 大衆이 참여하여 자신을 이야기하는 大衆의 文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직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自由中國에는 아직도 癌

29) 曾祥祥, 參加國軍文藝大會的感想(中華雜誌, 第一七五期, 臺北, 1968년 2월) 참조.

30) 中國新文學史 p.709 참조.

的인 要素가 잔재하여 文學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으니, 武俠
小説・色情小説이 新聞과 雜誌에 연재되어 國民의 意識을 마비시키고 있
는 것이 안타깝다.